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
- WSJ: 11월 미 내구재 주문, 6개월 이래 최고치 증가
- Bloomberg: 일자리 회복돼 연준 이번주 금리 동결 방침

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금값은 5천불 상회하고 달러 하락, 증시 상승

[날씨 여파]

- WSJ: 뉴욕시 폭설로 월요일 출근길 혼란
- CNBC: 연방교통장관 “이번주 수요일에 항공 운항 회복”

[무역 전쟁]

- YahooFinance: 연방정부, 희토류 채굴사에 16억불 투자... 지분 10% 받기로
- CNBC: 캐나다 총리 “중국과 자유무역 합의할 의도 없다”

[천연가스]

- YahooFinance:미 폭설에 미 천연가스 거의 20% 상승

[글로벌 경제]

- WSJ: “세계 경제는 정부 부채에 의존하고 있다”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Bloomberg: 중국 자동차사 BYD, 올해 중국 외에서 1백30만대 판매 예정

[미국 경제]

WSJ: US Durable Goods Orders Increase by Most in Six Month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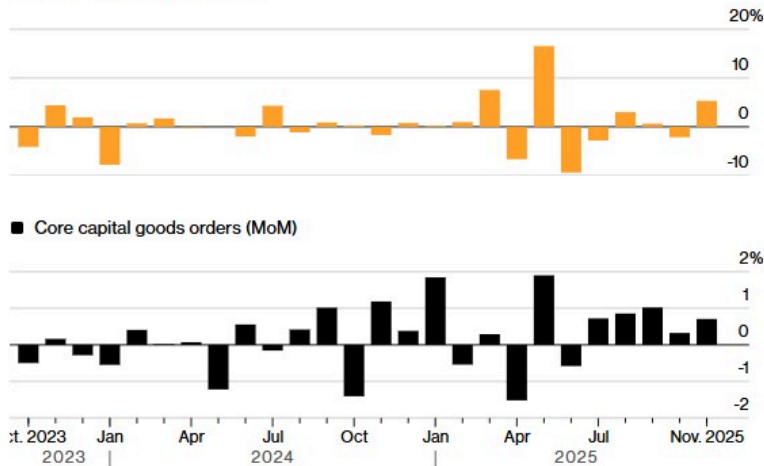
11월 미 내구재 주문, 6개월 이래 최고치 증가

- 연방 상무부의 월요일 발표에 따르면 11월 미 내구재 주문이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. 특히 상업용 항공기와 다른 자본재의 주문이 이를 주도했다.
- 10월에는 2.1% 하향 조정된 후에 5.3%로 상승했다. 이번 발표는 연방 섯다운으로 지연됐다.
- 항공기와 군사 장비를 제외한 장비 투자를 측정하는 핵심 자본재 전체 규모는 전체 예상보다 0.7% 상승했다.

US Durable Goods Orders Increased in November

Business equipment bookings also rose by more than forecast

■ Durable goods orders (MoM)



Source: Commerce Department

Note: Core goods exclude aircraft and military hardware

기사

Bloomberg: Fed to Hold Rates as Political Storm Intensifies Around Powell

일자리 회복돼 연준 이번주 금리 동결 방침

- 연준이 이번 주에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. 일자리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연준 관리들이 금리 동결 쪽으로 컨센서스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.
- 이들은 지금 금리 수준이 고용에 부담을 주지 않고, 물가의 하방 압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. 그리고 일부 관리들은 현 금리 수준이 중립 금리 추정치 범위 안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.
- 이 같은 연준의 금리 동결 방침은 트럼프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데, 파월 의장의 이번 주 정례회의 직후 발언은 연준이 얼마동안 금리를 동결할지 힌트를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.

기사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Dollar Drops While Gold Tops \$5,000, Stocks Rise

금값은 5천불 상회하고 달러 하락, 증시 상승

- 금값이 처음으로 온스당 5천불을 상회하고 있고 달러는 지난 4개월 이래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다. 증시는 천연가스 가격이 6달러를 상회하면서 전력업체들의 상승으로 오르고 있다.
- S&P 500은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1월들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. 국채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큰 폭의 변동은 없이 거래중이다.
- 특히 달러는 미국이 엔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이 공동 개입할 것이라는 추측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

- 이번주 들어 S&P 500의 3분의 1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. 특히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종목이 랠리를 보이는 가운데 이들 기업들은 실제 큰 성과를 보여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.

Japan Has Previously Tried to Limit Weakness in Yen Yen's low and high on the day and intervention amount



기사

[날씨 여파]

WSJ: NYC Winter Storm Has Workers Making a Messy Monday Commute 뉴욕시 폭설로 월요일 출근길 혼란

- 수년만에 큰 폭설로 뉴욕시 월요일 출근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.
- MTA가 운영하는 지하철이 스케줄이 바뀌고 뉴저지 거주자들이 사용하는 버스 서비스가 지연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. 뉴욕시 지하철은 운행되고 있지만 아침 운행이 지연되었다.
- 지난 일요일에는 뉴저지 트랜짓의 버스, 경전철, 기차 서비스가 중단됐는데 뉴저지 트랜짓은 운행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. 현재 일부 경전철과 버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.
- 오늘 월요일 롱아일랜드 기차는 주말 스케줄로, 메트로 노스 기차도 주말 스케줄로 운행되고 있다.

기사

CNBC: Transportation Sec. Duffy says air travel will return to normal by Wednesday

연방교통장관 “이번주 수요일에 항공 운항 회복”

- 연방교통장관인 Sean Duffy는 CNBC에 출연해 항공 운항이 이번주 주중까지 정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.
- 이번 주말 미 전역에 날씨가 눈과 얼음으로 뒤덮혀 수천편의 항공편이 취소됐다.
- 그는 항공 운항 혼란은 월요일까지 라고 말했다.

기사

[무역 전쟁]

YahooFinance: US to inject \$1.6 billion into rare earths miner for 10% stake, FT reports

연방정부, 희토류 채굴사에 16억불 투자... 지분 10% 받기로

- 연방정부는 희토류 채굴사인 오클라호마에 있는 USA Rare Earth에 16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. 그리고 이 회사 지분을 10% 받기로 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도했다.
- 그리고 이 같은 정부 투자와는 별도로, 10억 달러 규모의 민간 자금 조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, 이 내용은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도했다.
- 보도에 따르면, 미국 정부는 해당 희토류 기업의 주식 1,610만 주를 받게 되며, 주당 17.17달러에 추가로 1,760만 주를 살 수 있는 주식 매수 권리도 함께 받게 된다는 것이다.

기사

CNBC: Carney says Canada not pursuing free trade deal with China as Trump threatens 100% tariffs

캐나다 총리 “중국과 자유무역 합의할 의도 없다”

- 트럼프가 캐나다가 중국과 무역과 무역 합의 시행할 경우 징벌적인 관세 100%를 캐나다에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가운데 캐나다 총리 Mark Carney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구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.
- 그는 :”캐나다는 미 멕시코 캐나다 간 자유 무역협정을 존중하고 있어 미국과 캐나다에 대한 통고 없이 어떤 다른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- 트럼프는 지난 토요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“캐나다 총리가 캐나다를 중국이 미국으로 상품과 물건을 보내는 ‘중간 하역지’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, 그는 크게 착각하고 있다”라고 트럼프는 토요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“캐나다 총리가 캐나다를 중국이 미국으로 상품과 물건을 보내는 ‘중간 하역 국가’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, 그는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”라고 올렸다.

기사

[천연가스]

YahooFinance: US Natural Gas Jumps Almost 20% as Arctic Blast Takes Hold

미 폭설에 미 천연가스 거의 20% 상승

- 미 대부분의 지역에 폭설과 추운 겨울로 인해 난방 수요가 상승하고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 천연가스는 거의 20% 상승했다.
- 천연 가스 선물 가격이 2022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 BTU당 6달러를 넘어서며 급등했다. 이는 지난주에 70%나 폭등한 데 따른 것으로, 1990년 이후 기록된 주간 상승률로 중 가장 큰 폭이다.

- 이번 겨울 폭풍으로 미 천연가스 생산의 거의 10%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며, 난방과 발전용 연료 수요는 급증했다. 이번 폭풍으로 전력망에 큰 부담을 주었고, 교통도 마비되었다.

기사

[글로벌 경제]

WSJ: The World Economy Is Hooked on Government Debt

“세계 경제는 정부 부채에 의존하고 있다”

- 글로벌 경제가 점차적으로 정부의 큰 재정 진작 정책들과 예산 적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.
- 군비 경쟁, 고령화, 기술 변화, 유권자에 대한 두려움이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수준의 적자 지출 추세를 부추기고 있다.
- 미국과 독일은 부채를 통한 재정 진흥책으로 경제 성장을 약 1%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0.5%로 예상된다.
- 글로벌 공공 부채는 2029년까지 글로벌 GDP의 1백%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1948년 이래 최고치가 될 것이라고 IMF는 최근 발표했다.

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Bloomberg: EV Giant BYD Aims to Sell 1.3 Million Cars Outside China in 2026

중국 자동차사 BYD, 올해 중국 외에서 1백30만대 판매 예정

-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 자동차사 BYD는 자국내 판매가 힘든 가운데 중국 외의 시장에 올해 거의 25% 늘어난 주문을 목표로 하고 있다.
- 즉, 올해 중국에서 1백30만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. 이는 지난해 수출 인도분 1백5만대를 초과한 수치다.
-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BYD가 해외 판매 급증 덕분에 작년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 전기차(EV) 제조업체가 되었으나 중국 내에서는 정부의 전기차 구매 지원 축소와 국내 경쟁 심화로 수요가 부진한 상황이다.

기사